

##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김민정\*\*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했거나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 6명이며, 이들은 주 1회, 2시간씩 총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량적 분석으로 비모수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로는 첫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좋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장차 자신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의 자아기능과 양육기능을 통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교육이나 상담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아기능, 양육기능

논문 투고일: 2025. 05. 05.      최종심사일: 2025. 06. 12.      게재확정일: 2025. 06. 20.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NRF-2021S1A5A2A0107030111).

\*\* 동명대학교 상담·임상심리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Min-Jung, Department of Counselling·Clinical Psychology, Tongmyong University, Nam-gu, Pusan-si, Korea. 48520. E-mail: longmin@hanmail.net

## I. 서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적 관점이 시설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 입양 및 그룹홈 가운데 시설보호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은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며,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결핍과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다(윤명숙·박신애, 2014). 이들 중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에서 머무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 18세가 되면 보호에서 벗어나 퇴소를 하게 된다. 시설에서 퇴소하면 공식적인 보호와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설 청소년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립을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새로운 환경과 인간관계에도 적응해야 하고, 성인으로서 전환하기 위한 발달적 과업도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은 일반가정의 청소년과 달리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김선민·조순실, 2010),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Dixon & Stein, 2005).

이러한 자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시설에서 성장하는 동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할 수 있어, 정서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김말숙, 2002).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상당수가 가정해체로 인한 경우가 많아서 부모나 가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박미경·문혁준, 2009; 신혜숙, 2016). 또한, 예기치 못한 부모와의 분리는 이들에게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게 하며(정원철·이화명, 2014; Dinero et al., 2011), 부모에 대한 분노나 원망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강현아·신혜령·박은미, 2009). 이 외에도 청소년 스스로가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하여 입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수진·박찬영, 2019).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관점을 비롯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이나 신뢰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설 청소년에게 있어 자아기능은 매우 중요한데, 자기이해, 자기조절, 정체감 유지, 자존감 형성 등 심리적 독립성과 자립준비도 및 자기관리 능력은 퇴소 후의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유영립·양영미·박미현, 2015). 그러나 시설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

터 유기된 경험은 애착 손상, 반복적 분리 경험, 심리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자아기능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정선욱, 2002). 또한, 보호자의 지속적 지지 없이 성장하면서, 자기 결정과 자기 주도성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상실하거나 의지력 부족 및 무기력감을 경험하기도 하고(성선기, 2005), 유기불안이나 낮은 자존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쉽다(김예린·유순화·안진영, 2018). 이는 자립 이후의 사회적응, 정서 조절, 대인관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와 자기표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 감정 조절, 대인관계 기술, 자아정체감 형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아기능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김은지·이근매, 2014).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 건강한 자아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시설청소년들이 훗날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은 건강한 양육 모델을 경험하기가 어려워 부모의 부정적 양육경험을 반복하거나, 반대로 양육에 대한 회피나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김민정 외, 2019). 선행연구에서도 보호종료 청소년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무지, 양육반복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였다(유안진·민하영·권기남, 2001). 또한, 보호 종료 청소년 중 일부는 조기에 비계획적 임신을 경험하거나, 양육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애, 2013). 이에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동발달에 대한 교육이나 양육역할 연습 등 양육을 위한 인지적, 심리적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배은숙·강기정, 2006, 2008). 해외 연구에서도 보호종료 이후 부모가 된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양육이 나타날 수 있기에, 자립과정에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연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Courtney et al., 2010; Mendes et al., 2012). 이처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로 양육 태도, 발달에 대한 이해 및 기본적인 부모역할 기능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비 부모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 자아기능과 미래 가족역할 준비를 동시에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강기정·배은숙, 2008), 자아기능과 양육기능을 이원화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에 대해 탐색하며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집단 상담을 들 수 있다. 집단 상담은 상담자와 집단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집단상담은 일대일 상담이나 교육에 비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깊은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과 자기주장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상호간의 신뢰감을 높여 진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데 도움을 준다(김예린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기능과 양육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탄력성, 자기조절 등의 자아성장, 정서이해 및 표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자립을 위한 진로교육, 미래가족에 대한 가치관 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예린 외, 2018). 특히 시설청소년의 자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서인식 및 표현과 자기수용, 자기조절능력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임성희·이명우, 2013; 정세진, 2017; 허혜리·이윤연·김지은, 2016). 또한, 양육시설 청소년에게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박성정, 2009)이나 의사소통기술 프로그램(문조, 2019)이 자립이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에서도 경제교육 및 진로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김민정, 2022; 송연주·김세진·김경은·최수정, 2022), 진로 및 미래설계 중심의 교육은 이들의 자립 및 자아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신혜령·김보옥, 2011).

양육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현심(2012)의 ‘부모존경-자녀존중(이하,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근거하였는데, 본 프로그램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김민정, 2015; 김민정 외, 2018; 김은혜, 2007; 도현심 외, 2013; 송승민 외, 2014)으로 부모-자녀 간 상호존중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양육에 대한 신념과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초기 부모뿐만 아니라, 예비부모, 보육교사,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 다양한 대상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프로그램이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양육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대상 요구도 조사에서도 부모에 대한 상 정립,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돌봄과 성찰, 의사소통, 좋은 모델링을 하기 위한 부모역할, 정서조절능력 등의 요소를 언급하였다(김민정,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양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부모됨 이해, 배우자 선택, 발달에 대한 이해 및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설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와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야만 향후 부모로서의 양육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아기능과 양육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 양육자로서의 준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사전-사후 조사를 통한 양적분석과 더불어, 프로그램 과정 중에 이들이 경험한 질적인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청소년과 종사자들의 건강한 자아기능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향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강화 프로그램 구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들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에서의 양적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들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에서의 질적 변화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18~24세 청소년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조사 설계를 이용한 양적분석과 이들의 질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

간 총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 6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명으로, 만 18세가 4명, 만 21세가 2명이었고, 퇴소한 청소년은 1명, 퇴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은 5명이었다. 양육시설에서 지낸 기간은 5년 미만인 5명, 5년 이상이 1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참여자 6명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 변화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집단을 설정하기보다는 실험집단 내에서의 양적 및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	성별	연령	입소/퇴소 사항	일반적인 사항
참가자1	남	만21세	만2세/ 만18세 퇴소	만2세에 양육시설 입소하였고, 만18세에 퇴소를 한 후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자취를 하며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병행하고 있음. 외동으로 부모나 가족 등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음.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며, 삶의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음.
참가자2	남	만21세	만20세/ 퇴소 전	쉽터에 거주 중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과 진학을 목표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음. 형은 자립관에 있고,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함께 살고 있음. 중학교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
참가자3	남	만18세	만17세/ 퇴소 전	쉽터에 거주 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 있음. 만17세에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옴. 현재는 부모님이나 동생 등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음. 24세 퇴소계획이며, 현재는 대학에 재학 중이나 다른 진로를 계획하고 있음.
참가자4	남	만18세	만17세/ 퇴소 전	쉽터에 거주 중으로,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에 있음. 큰 아버지와 살았는데 사이가 좋지 않음.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표현하였고, 현재 아버지와는 가끔 연락하고 있음.
참가자5	남	만18세	만16세/ 퇴소 전	양육시설에 거주 중으로, 어머니, 아버지, 형이 있음. 현재 대학생으로 졸업 후에 취업할 계획임. 만15세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함. 아버지와는 갈등으로 시설에 오게 되었고, 현재는 가족과 거의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음.
참가자6	남	만18세	만14세/ 퇴소 전	만14세에 양육시설에 있다가 만16세에 현재 기관으로 옮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음. 현재 가족과는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함.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음.

## 2. 연구도구

### 1) 자아기능

#### (1) 자기이해 및 수용

자기이해 및 수용은 민경숙(200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이해 5문항과 자기수용 8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의 예로는 자기이해는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고 애쓴다.’, 자기수용은 ‘나는 남의 비판에 흥분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이해 및 수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764와 .729로 나타났다.

#### (2) 자기개방

자기개방을 측정하기 위해 Kahn과 Hessling(2001)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불편감 노출 척도(Distress Disclosure Index; DDI)를 윤지영(2007)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불편감을 개방하는지 또는 은폐하는지 그 경향성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는 대개 내 친구들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 ‘나는 고민스러울 때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847과 .942이었다.

#### (3)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Ryff와 Keyes(1995)가 제작한 PWB(The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18문항과 Pavot와 Diner(1993)가 제작한 SWLS(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의 5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박서영(2007)이 사용한 척도이다. PWB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정서적으로 느끼며 인지하는 복지감의 수준을 나타내며, SWLS은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한 만족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두 척도를 통합하여 사용한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에

게 삶은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나는 그날그날을 살며, 미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원 척도는 7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분명한 답을 끌어내기 위해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음을 뜻한다. 본 척도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916과 .924로 나타났다.

## 2) 양육신념

본 연구자들은 자녀양육을 경험한 대상이 아니어서, 양육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양육에 대한 신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신념은 아동 양육 목표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신념 내용으로 구성된 김은혜(2017)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성/지적 성취강조 요인과 성숙주의/환경주의 요인 2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신념이 변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와 관련된 요인인 성숙주의/환경주의 요인 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성숙/환경주의 신념은 성숙주의 신념이 자녀의 발달이 유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환경주의 신념은 환경이나 학습 및 경험에 의해 발달이 달라진다고 본다. 선행 연구들에서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주의 신념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하였음을 의미한다(김은혜, 2017; 안지영, 2001). 성숙주의/환경주의는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주의’ 신념을 나타냄을 뜻하며, 다. 본 척도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713과 .845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 1) 1단계: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에 앞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대상 요구도 조사나 프로그램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 성장과 부모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자아기능은 개인의 내적 자원과 외부 환경 간의 조화를 이루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

한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된다(이숙, 200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아기능과 관련된 주요 요소로는 자기 인식 및 수용, 정서 조절 능력, 대인 관계 기술,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능력 등이 있다(서윤정·이동훈, 2011; 이민선·채규만, 2012). 또한, 청소년의 자아기능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인간 관계,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강경선·김장희, 2020), 자기 이해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장정인·강금해, 2020).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기 이해, 정서 조절,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본 연구의 예비연구로 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 대상 요구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김민정, 2022)에 근거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부모됨’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부모에 대한 상 정립,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돌봄 및 성찰, 의사소통 기술, 좋은 모델링, 정서조절능력, 성교육, 진로 및 경제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하였고, 이를 본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부모-자녀의 건강한 상호작용이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의 이해와 부모역할, 양육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조절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방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도미향·김은영, 2024; 정미형·이경주, 2020).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또는 퇴소를 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 성장과 이후 부모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강화 프로그램 2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4회기씩,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자아기능강화는 1-4회기로, 1회기에는 자기이해, 수용 및 개방, 2회기는 정서이해, 3회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4회기는 경제 및 진로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양육기능강화는 5-8회기로, 5회기에는 부모됨: 부모-자녀관계, 6회기 배우자 선택과 건강한 부부관계, 7회기 태내기 및 영아기 발달과 부모역할, 8회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미래계획으로 이들이 순차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중심으로 회기를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 주제 및 교육내용과 회기별 세부내용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기능강화 및 양육기능강화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교육 내용**

구분	회기	주 제	교육 내용
자아 기능	1	자기이해, 수용 및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li> <li>• 참가자간 친밀감 형성하기</li> <li>• 인생그래프 통해서 자신의 삶 돌아보기</li> </ul>
	2	정서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정서에 대한 이해</li> <li>• 정서조절을 위한 예방 및 해결방법</li> </ul>
	3	효과적인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티어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li> <li>• 공감적 대화, 나-전달법</li> </ul>
	4	경제 및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정책적 지원 탐색 및 활용</li> <li>• 진로 및 취업 세우기</li> </ul>
양육 기능	5	부모됨: 부모-자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됨의 의미와 준비</li> <li>•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유전 및 환경</li> </ul>
	6	배우자 선택과 건강한 부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관계를 통한 자기이해</li> <li>• 배우자 선택 및 결혼</li> <li>• 건강한 부부관계와 부모역할</li> </ul>
	7	태내기 및 영아기 발달과 부모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내기 발달과 부모역할</li> <li>• 영아기 발달과 부모역할</li> </ul>
	8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미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가정에 대한 설계</li> <li>•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계획</li> <li>• 평가 및 소감</li> </ul>

## 2) 2단계: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양육시설의 기관장 및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관련 오픈채팅방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참여 기간, 부작용 또는 위험요인, 연구 참여에 따른 이득과 관련된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에 동의한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참가자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자들의 사전-사후 변화만을 살펴보고자 하여,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았다.

## 3) 4단계: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중재 프로그램을 주 1회 2시간 기준으로 8회기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강사는 아동상담 및 부모교육을 전공하고, 15년간의 부모 및 교사교육의 실무경험

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도입(20분), 전개(1시간 30분), 마무리(10분)로 구성되며, 전개 중간에는 휴식 10분이 포함되며 매 회기 강의 및 실습과 함께 병행하였다.

#### 4)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사전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집단의 행동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양적, 질적 분석을 살펴보았다. 양적 분석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모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재집단의 사전-사후점수 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함께 사용하였다.

질적 분석과 관련하여, 매 회기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참가자의 동의하에 녹화하였다.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전사한 후 변화과정을 분석하였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의 개별 인터뷰를 전사하여 이들의 변화과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양적 분석

본 프로그램에 참가자의 자아기능강화 및 양육기능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자기이해 및 수용, 자기개방, 삶의 만족 및 양육신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자기이해 및 수용은 사전점수(M=3.14)에 비해 사후점수(M=3.53)가 높게 나타났으나( $z=-1.753$ , n.s),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개방의 경우, 사전점수(M=2.88)보다 사후점수(M=3.63)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z=-1.892$ ,  $p<.05$ ), 삶의 만족은 사전점수(M = 2.52)에 비해 사후점수(M=2.96)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z=-1.992$ ,  $p<.05$ ). 또한, 양육신념도 사전점수(M= .16)에 비해 사후점수(M=3.74)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z=-2.207$ ,  $p<.05$ ). 즉, 청소년의 자기개방이나 삶의 만족 및 양육신념이 프로그램 전에 비해 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아가능 및 양육기능강화를 위한 각 변인에 따른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차이 (N = 6)**

요인	하위 요인	사전	사후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M (SD)	M (SD)	N <sup>a</sup>	평균 순위 합	N <sup>b</sup>	평균 순위 합				
	자기이해 및 수용	3.14 .50	3.53 .39	1	1.00	1.00	4	3.50	14.00	1	-1.753
	자아 기능	2.88 .72	3.63 .21	1	1.50	1.50	5	3.90	19.50	0	-1.892*
	삶의 만족	2.52 .50	2.96 .14	1	1.00	1.00	5	4.00	20.00	0	-1.992*
양육 기능	양육신념	3.16 .59	3.74 .34	0	.00	.00	6	3.50	21.00	0	-2.207*

\* $p < .05$ .

a 사후점수<사전점수, b 사후점수>사전점수, c 사후점수=사전점수

## 2. 질적 분석

본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의 양적변화 외에도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질적 변화와 사후 면담 과정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1) 참가자 1

4세에 보육원에 입소하였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초반에는 걱정 없이 뛰어놀았으나 중학생이 되면서, 외부요인이 아닌 스스로 인생에 의미가 없고 삶에 재미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좋은 기회로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 현재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전진하고 있고, 인정의 욕구가 높아서 계속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 늘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등 자기개방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2회기 감정을 다루는 회기에서는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들에 대한 혹시 모를 실패가 있을까봐 걱정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주변에 응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맙다고 생각했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가끔은 혼란스럽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인정해 주는 말을 들으면 기쁘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내려고 노력하였다. 3회기 의사소통에서는 공감을 받았던 좋은 경험은 있지만 자신은 해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공감과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타인과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실제 여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전달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한 경험을 가지기도 하였다. 4회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삶의 키워드가 사랑, 배움, 행복이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가정을 잘 이루어 완전한 독립을 하고 가정과 별개로 자비와 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였다. 특히, 자신과 같은 자립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싶다고 하였다. 5회기 이후 양육관련 회기에서는 부모가 되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나중에 가정을 이룬다면 자신이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내편이 생긴다는 믿음과 자신의 아이가 사랑스러울지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교육에서 배운 대로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며, 아이의 의견을 자주 묻고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며, 자주 소통하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좋은 남편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참가자 1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 감성적으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기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운영적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하였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으면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자신도 시설에 있을 때, 재능기부로 과외를 해 주시는 분이나 공기업 준비를 위해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실패하는 삶도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 1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30세 이전에 자신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였다.

저는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범위가 아닌 이상 뭘 한다고 해도 믿을 수 있게 키우고 싶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죠. 친구 같은 부모.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을 많이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꾸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 2) 참가자 2

참가자 2는 2회기부터 참가하였고, 현재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을 진학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정서와 관련한 내용에서 현재 시설에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말해주는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느끼고,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생이 내 몸이 워너비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에서 회유형의 소통방식을 취하는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고,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평소에도 참다가보니 한계치에 오면 터져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꾸어야 될 것 같다고 하였다.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최근에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해본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공감을 해 주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했다. 양육기능 관련 회기에서는 지금은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능력이 아직은 없어서, 부모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좋은 부모는 자식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길들이려고 해서 자녀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은 경제력을 갖추고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인 것 같고, 배우자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처음에는 관심있는 주제가 아니었는데, 유익한 내용들 덕분에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이 시간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것 같다고 하였다. 매 순간 재밌고 유익했으며, 자신의 동생에게도 이 좋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였다.

참가자 2는 성격적인 강점으로 공감을 잘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하다 보니 평소에 할 말을 다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좀 높여서 타인의 말에 신경을 덜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삶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중학교 때부터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때리는 행동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도 갑자기 한 번씩 아버지처럼 화를 내거나 흥분하며 급발진 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는 고쳐야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부모님한테 돌봄을 받지 못했고 일상의 대화도 거의 해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꾸릴 가족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도 부모가 된다면, 자녀에게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였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제가 그동안 혼자 생각하던 부분들을 돌이켜 볼 수 있었고, 대화법이라던가 ‘나 전달법’ 이런 것도 어느 순간 보니깐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의 대화방식이 회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타인을 우선시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는 내 생각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 좋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동생이 고1인데 이 교육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들을수록 유익하고 실시간 교육이 즐거워서 동생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싶네요.

### 3) 참가자 3

참가자 3은 회기 초반에 자신의 인생그래프에서 18세에 최하락을 찍었는데, 현재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목표가 사라지게 되어서 -100의 최하락의 삶으로 떨어졌다고 하였다. 현재는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조하고 말하기 힘든 상태라고 하였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소리 지르면서 뛰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가자 3은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성격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이랑 화목한 아이들을 보면 많이 부러웠다고 하였다. 처음에 컴퓨터에 갔을 때 컴퓨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깐 괜찮아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가부장적이고 엄격하다 보니까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무조건 따랐어야 됐기 때문에 다툼이 좀 많았었고, 현재는 가족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고,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린 시절 할머니의 보살핌을 기억하게 되었고, 첫째로서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신에 대해 이해해주지 않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서운한 감정으로 남아있었다.

참가자 3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다고 하였고, 결혼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있다는 거에서부터 의지할 사람이 있고 옆에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되고자 하는 계획도 생겼는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아내의 심리적 안정도 돕고 싶다고 하였다.

다른 가족처럼 하고 싶은 거 해주고 벗어나갈 때 잡아주는 화목한 가족을 만들고 싶고, 자녀들과도 친구같이 지내고 싶어요. 자식들이랑 친구 같이 지내고 싶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다짐도 해 보게 되었어요.

### 4) 참가자 4

참가자 4는 회기 초기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태어났으니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타인에게 자신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다치거나 아팠던 기억이 많아서 부정적이었고, 현재는 +40점 정도로 그저 그런 인생 같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아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도 회기 초반에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좋았다고 표현하였다. 중,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견뎌야 할 일들을 버티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현재의 감정은 ‘아프다’이지만, 다음에는 긍정정서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회기에서는 산만형인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주제를 돌리는 측면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참가자 4는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는 과정을 봤을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서라고 하였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래 자신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녀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기도 하다고 하였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친구같은 사이가 되고 싶다. 자녀가 사춘기일 때 힘들 것 같고, 자녀랑 대화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던 것 같다.

## 5) 참가자 5

참가자 5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전공의 대학을 입학할 예정이라서 행복하다고 하였다. 최근의 감정은 특별한 일 없이 괜찮게 지내고 있는데, 자신의 성과나 노력에 대해 칭찬을 받을 때는 긍정의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되거나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좌절하기 싫으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다고 하였다. 삶의 키워드 3가지가 돈, 사랑, 운동인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반평생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고, 돈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참가자 5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돌봄 기억이 없으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자신과

어머니를 때렸던 기억 외에는 남는 게 없다고 하였다.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자신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부모됨에 대한 회기에서는 아기를 좋아해서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가족이라고 속에 있는 애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크면서 본인을 어려워하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자녀와는 친근하게 지내고 싶고, 자녀가 자신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아이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였다. 특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게 좋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감 있고 정신력이 강하며,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태어날 때의 가족은 제가 정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천적인 가족 형태다 보니까 내가 성격이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다고 한다면..제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한다면 제가 원하는 사람과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라 해도 자녀가 모든 감정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싶고, 의사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6) 참가자 6

참가자 6은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고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 16세에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는 보육원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올해 수능을 치러야 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가 분명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자신만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가자 6은 자신도 준비가 되면 부모가 되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좋은 부모는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인 것 같다고 하였다. 어린 시절 엄마와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잘 듣고 생각해 보는 부모, 친근하고 소통하고 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참가자 6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서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부모가 되면 공부는 꼭 시킬 거라고 하면서, 소통하는 부모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본인은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모는 자신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상처를 모르게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서, 애들이랑 소통하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그런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친근하고 소통하는 부모가 되고 싶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좀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을 위한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 강화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자기 이해는 개인의 행동과 삶의 방향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프로그램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양육기능 향상으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자아기능 영역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기이해, 정서이해, 의사소통 등의 요소가 핵심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김민정, 2022; 장정인·강금해, 2020), 청소년 대상 요구도 조사에서도 경제적 준비와 진로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자아기능 강화 영역을 구성하였다. 양육 기능 영역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양육에 대한 지식, 문제해결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으며(도미향·김은영, 2024),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는 배우자 선택 및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참여자들에게 적절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자아기능 중 자기개방과 삶의 만족도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미술치료이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자기수용, 자기성장 및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 변화를 보인 연구들(김은정·장미경, 2020; 이주영, 2006; 전정화·류경희, 2013)이나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 변화를 보인 연구(송연주 외, 2022)와 유사하다. 본 프로그램은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유사한 경험을 지닌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격려를 받는 경험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수용하며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가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기 이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삶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삶을 보다 의욕적으로 나아가려는 동기로 이어졌다. 따라서 향후 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양육신념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이나 학습 및 경험에 의해 자녀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즉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습득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및 미래의 행복한 가족상을 정립한 연구(강기정·배은숙, 2008)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비록 이들은 아직 실제 부모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경험과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 부모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으며,

건강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 역할에 대한 명확한 모델이 부족한 시설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 강사의 격려와 공감은 부모 역할에 대한 간접적인 모델링의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모 역할 이전에 요구되는 건강한 이성교제 및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까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대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도 발달심리, 부모교육,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초기에는 참가자들이 큰 기대 없이 참여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자기 이해가 깊어졌고, 그 결과 자신을 보다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특히,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향후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자신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부부의 사례연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역할을 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자포자기의 심정을 다룬 연구(박신애, 2017)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독서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가족이미지, 가족개념 및 미래가족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한유진·노남숙, 2009)와도 유사하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현재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후 부모가 된다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되고 싶은 부모상으로 자녀에 대한 존중감, 편안함, 안정된 정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모로 보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보고한 연구(김민정, 2022)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가자들이 알게 되었다. 즉, 좋은 부모됨을 위해서는 현재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이는 좋은 부모역할에 대한 모델이 없더라도 좋은 멘토,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이후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보호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초, 중, 고등학생의 발달특성에 맞는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청소년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했거나 퇴소를 앞둔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이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립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부모됨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아기능과 양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양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요구를 토대로 이들의 자아기능과 양육기능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각 회기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매 회기마다 시설청소년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나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부족한 지지체계를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있어 질문지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참여자가 작성한 활동지, 행동 및 언어적 표현, 개별 심층 인터뷰 등 질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매 회기 참가자들의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양적연구의 한계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초점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수 대상자의 변화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선행 실험연구들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대기집단을 포함한 비교설계를 도입하고,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추후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남자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동성 집단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성 집단의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으나, 여자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한 경우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효과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여자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총 6명의 소규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향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닌 탐색적 연구로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초기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양적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또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과 심층 면담을 활용한 깊이 있는 질적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와 경험을 보다 정밀하게 탐색하는 접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상과 부모상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다양한 교육이나 상담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강경선·김장희(2020). 청소년의 자아상태 기능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류분석상담연구**, 10(1), 147-171.
- 강기정·배은숙(2008). 시설보호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연구**, 5(1), 23-42.
- 강현아·신혜령·박은미(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41-69.
- 김말숙(200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15). 보육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능력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311-332.
- 김민정(2022).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건강한 양육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27(3), 239-258.
- 김민정·김수지·김정은, 손한결, 김태선(2018).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1), 41-62.
- 김민정·이운경·김태우·양예진(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1(2), 89-118.
- 김선민·조순실(2010). 청소년의 그룹홈 체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31-53.
- 김예린·유순화·안진영(2018).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한국청소년학연구**, 29(3), 71-99.
- 김은정·장미경(2020). 부모놀이치료를 이용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양육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공감, 자기수용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1(1), 147-189.
- 김은지·이근매(2014). 쉼터 거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21, 51-75.
- 김은혜(2017).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존경-자녀존중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미애(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91-125.
- 도미향·김은영(2024).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부모교육연구**, 21(1), 29-47.
- 도현심(2012). 첫 부모역할 책. 지식채널.
- 도현심·김민정·신나나·최미경·박보경(2013). 아동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을 기초로. **아동학회지**, 34(3), 151-177.
- 문조(2019). 보드게임을 활용한 시설 청소년의 사회성,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증진에 관한 일 연구. 전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숙(2008).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에 미치는 효과의지속성 탐색.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문혁준(2009).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와외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7(2), 1-13.
- 박서영(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정 (2009). 자립준비프로그램과 사회적지지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애(2017).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부모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9), 519-527.
- 배은숙·강기정(2006). 시설청소년의 가족인식 및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요구: 시설청소년과 퇴소자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2), 107-125.
- 배은숙·강기정(2008). 시설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73-190.
- 서윤정·이동훈(2011). 중학생의 자아상태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학교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류분석이론 관점에서. **상담학연구**, 12(6), 2123-2144.
- 성선기(2005).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양육시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민·도현심·김민정·김수지·윤기봉·김정은(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참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133-158.
- 송연주·김세진·김경은·최수정(2022). 청소년 자립준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30(1), 21-48.
- 신혜령·김보옥(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1), 29-49.
- 신혜숙(2016). 아동양육시설 생활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접근.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민하영·권기남(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유영립·양영미·박미현(2015).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 생애사적 관점으로. **아동과 권리**, 19(3), 509-550.
- 윤명숙·박신애(2014). 퇴소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4), 133-155.
- 윤지영(2007). 낙인, 자기개방, 자기개방이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채규만(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수진·박찬영(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립준비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6(4)**, 87-108.
- 이숙(2003). 청소년기 여고생의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자아기능 강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55-163.
- 이주영(2006). 자기성장을 목적으로 한 쉼터 거주 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희·이명우(2013).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4)**, 331-347.
- 장정인·강금혜(2020). 저널치료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기이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심리교육 복지, 7(2)**, 271-286.
- 전정화·류경희(2013). 집단미술치료가 양육시설 청소년의 자기성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 심리치료학회지, 81(1)**, 1-25.
- 정미현·이경주(2020). 양육효능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부모교육연구, 17(3)**, 19-37.
- 정선옥(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세진(2017). 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집단미술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사회적 기술과 정서지능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철·이화명(2014).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시설 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1(3)**, 243-265.
- 한유진·노남숙(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가족이미지, 가족 개념 및 미래가족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16(4)**, 51-77.
- 허혜리·이윤연·김지은(2016).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통합심신치유연구, 3(2)**, 1-20
- Courtney, M., Dworsky, A., Lee, J., & Raap, M. (2010). Midwest evaluation of the adult functioning of former foster youth: Outcomes at age 23 and 24. Chicago: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 Dinero, R. E., Conger, R. D., Shaver, P. R., Widaman, K. F., & Larsen-Rife, D. (2011). Influence of family of origin and adult romantic partners on romantic attachment security.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1*, 16-30.
- Dixon, J., & Stein, M. (2005). Leaving Care: Through care and aftercare in Scotland,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ing.
- Kahn, J. H., & Hessling, R. M. (2001). Measuring the tendency to conceal versus disclosure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41-65.
- Mendes, P., Johnson, G., & Moslehuddin, B. (2012). Young people transitioning from out-of-home care and relationships with family of origin: An examination of three recent. *Australian studies. Child Care in Practice, 18(4)*, 357-370.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또는 퇴소를 앞둔 청소년의 자아기능 및 양육기능강화 프로그램의 효과(김민정)

Ryff, C., & Keyes, C.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Abstract

## The Effects of an Ego Function and Parenting Skills Enhancement Program for Adolescents Who Have Left or Preparing to Leave Residential Childcare Facilities

Kim, Min-J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program designed to strengthen ego function and parenting skills for six adolescents who have left or are preparing to leave residential childcare facilities. They participated in an eight-session program, conducted once a week for two hours per session.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program's effectiveness, with quantitative data analyzed using non-parametric methods and qualitative analysis conducted in parallel.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gram was well-aligned with the participants' needs and was received positively. Second, the participants showed positive changes in their ego function and parenting skills after the program when compared to before. Third, the participants demonstrated improvements in ego function and parenting skills, gained deeper self-understanding, an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mmunication for healthy relationships. Fourth, the participants also acquired a clearer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a good parent and reported increased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become good parents in the future. This study confirmed that educational and counseling approaches can support individual growth and lead to positive change.

**Keywords** : residential childcare facilities, adolescents, ego function, parenting skills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ling-Clinical Psychology, Tongmyong University